

미 증시, 고용보고서 발표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혼조세 마감

•미 증시는 개선된 고용상황과 무역수지로 장 초반 하락 출발하였으나 주요 연준 위원의 안도 발언에 등락을 거듭하다 혼조세로 마감. 금요일(현지시간)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는 심리 커. 국제 수익률은 큰 변화없이 소폭 하락하였고 달러인덱스 역시 최근 상승에 따른 소폭 하락에 그쳐. (다우 -0.03%, 나스닥 -0.12%, S&P500 -0.13%, 러셀2000 +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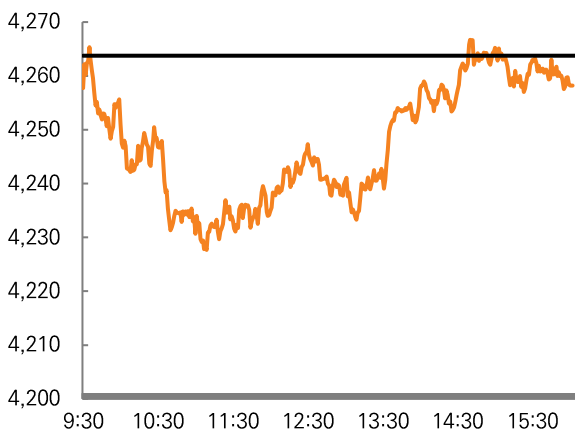
특징 종목: 필수소비재 약세

•S&P 500 주요 섹터 중 필수소비재(-2.07%)가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향후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 이날 실적을 발표한 컨스텔레이션 브랜즈(-3.22%)는 시장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과 FY24 가이드스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엄격해질 소비자의 환경, 예상보다 낮은 매출 증가율과 마진 압박 증가 등의 우려로 하락. 펩시코(-5.22%) 역시 3분기 보수적인 마진 전망과 배당 투자처로서의 매력 감소 등으로 하락. 이에 코카콜라(-4.83%), 몬스터 베버리지(-4.28%) 등 필수소비재 내 음료株들이 대거 하락하며 낙폭을 키워.

한국 증시 전망: 관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0.40%, MSCI 신흥 지수 ETF는 0.38%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44.30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7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44% 상승. KOSPI는 0.4%~0.7%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일 상승 출발했던 국내증시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장 후반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강화되자 하락 반전해 마감. 특히 코스닥은 2차전지 등락에 따라 변동성이 장중 약 2% 포인트에 달해. 다만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당국이 불안한 시장 달래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아.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 고용보고서와 9일 휴장(한글날)에 따른 관망심리가 우세할 것으로 보여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03.60	-0.09	상해종합	3,110.48	+0.10
KOSDAQ	801.02	-0.79	홍콩항셱	17,213.87	+0.10
DOW	33,119.57	-0.03	베트남	1,113.89	-1.31
NASDAQ	13,219.83	-0.12	유로스톡스 50	4,099.81	-0.00
S&P 500	4,258.19	-0.13	영국	7,451.54	+0.53
캐나다	19,137.81	+0.54	독일	15,070.22	-0.20
일본	31,075.36	+1.80	프랑스	6,998.25	+0.02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변화 요인

① 고용과 무역수지 ② 발언

미 증시는 개선된 고용상황과 무역수지로 장 초반 하락 출발하였으나 주요 연준 위원의 안도 발언에 등락을 거듭하다 혼조세로 마감. 금요일(현지시각)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는 심리 커. 국채 수익률은 큰 변화없이 소폭 하락하였고 달러인덱스 역시 최근 상승에 따른 소폭 하락에 그쳐.

주요 경제지표: ① 실업수당, 정리해고 ② 무역수지

장 시작 전 발표된, 지난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개월래 최저인 20만 7천건 증가에 그치며 시장 예상 21만건을 하회. 이는 최근 채용규모는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해고는 크게 늘지 않은 견조한 미국 노동시장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Challenger, Gray & Christmas가 발표한 정리해고 보고서에 따르면, 9월 4만 7457건의 감원이 있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전월(7만 5151건)대비 37% 감소했지만, 전년대비 58% 증가한 수치임. 지난 3분기 동안에 14만 6305건의 감원을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대비 92% 증가했지만, 2분기 대비 22% 감소. 연간 누적(1~9월)으로는 약 60.5만건의 감원이 있었는데, 이는 2020년 팬데믹 영향으로 발생한 감원(약 208만건)을 제외하면 2009년 이후 최대. 다만 감원 규모가 컸던 기술(IT) 부문에 대한 감원은 여름 이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며 9월 한 달간 감원은 지난 해 6월 이후 가장 낮은 2537건 기록.

한편 8월 무역수지는 전월대비 10%(64억 달러) 감소한 583억 달러 적자를 기록. 이는 2020년 9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로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면서 무역적자 규모가 줄었기 때문. 특히 8월 수출은 2,560억 달러로 전월대비 1.6%(41억 달러)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 원유와 의약품, 컴퓨터 관련 장비 수출이 크게 늘어. 반면 수입은 지난 해 기록한 역대 최고치 대비 10% 가까이 감소하였는데 휴대폰, 반도체 및 전기장치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 연간 누적 무역적자는 1,376억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20.7% 감소. 또한 같은 기간 수출은 220억 달러(1.1%) 증가한 반면, 수입은 1156억 달러(4.3%)나 감소.

주목 할 발언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노동시장과 물가가 계속 냉각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서 현재의 통화정책은 제한적이라고 밝혀. 또한 긴축된 금융 상황으로 인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최근 채권 수익률의 상승은 약 1회 (25bp)의 금리 인상과 같다고 말해. 또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시장이 예상 외로 보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최근 국채수익률이 단기채 보다는 장기채에 집중되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여지가 커진 것으로 해석 가능.

또한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최근 장기채 수익률 상승의 원인은 재정 발행과 강력한 데이터 때문이라면서 현재 금리가 높게 느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도 피력.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경제의 체력에 맞는 평균 금리 수준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의미. 마지막으로 바킨 총재는 아직 연준이 원하는 수준의 물가안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설부른 정책 전환은 하연 안된다고 강조.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수소비재 약세

S&P 500 주요 섹터 중 필수소비재(-2.07%)가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향후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 이날 실적을 발표한 컨스털레이션 브랜즈(-3.22%)는 시장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과 FY24 가이드스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엄격해질 소비자의 환경, 예상보다 낮은 매출 증가율과 마진 압박 증가 등의 우려로 하락. 펩시코(-5.22%) 역시 3분기 보수적인 마진 전망과 배당 투자처로서의 매력 감소 등으로 하락. 이에 코카콜라(-4.83%), 몬스터 베버리지(-4.28%) 등 필수소비재 내 음료株들이 대거 하락하며 낙폭을 키워. 전기차 회사 리비안(-22.88%)은 약 15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급락. 크로락스(-5.23%)는 지난 8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공장 가동 중단 등의 영향으로 큰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 이에 주가는 2022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반면 램 웨스턴(+7.26%)은 시장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과 FY24 가이드스 상향 조정에 힘입어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일간 상승률을 기록. 또한 최근 활발한 M&A 및 보유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며 일라이릴리(+1.89%), 존슨앤존슨(+1.04%) 등 상승하며 헬스케어(+0.49%) 강세

상품 및
FX시장 동향

美 천연가스 한 달 만에 최고

美 헨리허브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MMBtu당 3.1달러를 상회하며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 에너지정보청(EIA)가 발표한 주간 천연가스 재고가 860억 입방피트(bcf) 증가하며 시장 예상(940억)과 전주(900억) 증가를 하회했기 때문. 또한 하위 48개주의 일일 평균 생산량이 1024억 입방피트로 9월 1029억, 8월 최고치인 1031억에 못 미치며 공급 우려 커졌기 때문. 또한 뉴 포트리스 에너지의 LNG 수출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해외 판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점도 국내 공급 감소 우려 키워. 여기에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의 7%를 담당하는 호주 세브론 LNG 플랜트 노조 파업이 다시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해져.

반면 국제유가는 2% 넘게 하락하며 5주 최저치로 하락. 전일 EIA가 발표한 것처럼 최근 휘발유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JP모건은 미국 휘발유 소비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2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혀

한국
주식시장 전망

관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0.40%, MSCI 신흥 지수 ETF는 0.38%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44.30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7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44% 상승. KOSPI는 0.4%~0.7%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일 상승 출발했던 국내증시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장 후반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강화되자 하락 반전해 마감. 특히 코스닥은 2차전지 등락에 따라 변동성이 장중 약 2% 포인트에 달해. 다만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당국이 불안한 시장 달래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아.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 고용보고서와 9일 휴장(한글날)에 따른 관망심리가 우세할 것으로 보여



WTI, 배럴당 82달러 기록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12	대형 가치주 ETF (IVE)	-0.17
클린테크 ETF (CTEC)	-1.38	중형 가치주 ETF (IWS)	-0.19
소매업체 ETF (XLY)	-0.50	소형 가치주 ETF (IWN)	+0.25
온라인소매 ETF (EBIZ)	-0.45	대형 성장주 ETF (VUG)	+0.07
미국 인프라 ETF (PAVE)	-0.47	중형 성장주 ETF (IWP)	-0.17
핀테크 ETF (FINX)	+0.20	소형 성장주 ETF (IWO)	-0.05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06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47
클라우드 ETF (CLOU)	-0.81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12
사이버보안 ETF (BUG)	-0.47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40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57	미국 국채 ETF (IEF)	+0.19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2.55	하이일드 ETF (JNK)	+0.14
바이오섹터 ETF (IBB)	+1.33	신흥국 채권 ETF (EMBD)	+0.20
로봇&AI ETF (BOTZ)	+0.33	물가연동채 ETF (TIP)	-0.15
반도체 ETF (SMH)	0.00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12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부동산	209.82	+0.67	-1.53	-8.61
헬스케어	1,500.08	+0.49	-0.84	-2.48
IT	2,934.14	+0.25	+1.38	-6.57
금융	544.13	+0.24	-2.32	-4.50
커뮤니케이션	224.89	-0.12	+0.47	-1.61
유틸리티	286.59	-0.55	-4.02	-7.91
경기소비재	1,251.95	-0.57	-0.43	-6.32
에너지	654.09	-0.58	-7.64	-5.85
산업재	841.30	-0.64	-2.48	-6.74
소재	486.23	-1.26	-1.90	-5.88
필수소비재	707.91	-2.07	-2.92	-5.78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82.31	-2.03	-10.03	Dollar Index	106.345	-0.43	+0.11
브렌트유	84.07	-1.89	-9.57	EUR/USD	1.0549	+0.43	-0.16
천연가스	3.17	+7.46	+8.08	USD/JPY	148.48	-0.43	-0.56
금	1,831.80	-0.04	-2.37	GBP/USD	1.2191	+0.46	-0.10
은	21.02	-0.15	-7.15	USD/CHF	0.9126	-0.50	-0.26
알루미늄	2,232.00	-0.65	-2.00	AUD/USD	0.6370	+0.71	-0.89
전기동	7,899.00	-0.64	-3.88	USD/CAD	1.3710	-0.25	+1.65
아연	2,476.50	-0.66	-5.50	USD/RUB	100.0604	+0.04	+3.36
옥수수	497.50	+2.11	+1.59	USD/BRL	5.1693	+0.22	+2.71
밀	578.25	+3.04	-0.30	USD/CNH	7.3043	-0.17	+0.13
대두	1,280.75	+0.51	-1.61	USD/KRW	1,350.50	-0.95	+1.02
커피	145.40	-0.65	-1.22	USD/KRW NDF1M	1,344.05	-0.47	-0.32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717	-1.64	+14.17	스페인	4.001	-1.50	-2.10
한국	4.335	-5.00	+32.30	포르투갈	3.648	-0.10	-4.10
일본	0.812	+0.30	+5.10	그리스	4.354	-3.80	-12.50
독일	2.878	-4.10	-5.20	이탈리아	4.890	+2.70	+2.2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